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인터넷 언론 보도 경향 분석

이명수^{*,**†} · 고정아^{*,**} · 오정하^{*,**} · 신윤식^{*,**} · 박정숙^{*,**}

Trend of Internet Media Report for Mental Health and Suicide

Myung-Soo Lee, M.D., MPH,^{*,**†} Juna-A Ko, PRN,^{*,**} Jeong-Ha Oh, MSW,^{*,**}
Yoon-Sik Shin, M.D.,^{*,**} Jung-Suk Park, MSW^{*,**}

■ 국문 초록

목 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에 대한 최근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9년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정신건강, 정신질환, 우울, 자살이라는 4개의 중심단어를 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총 1,495건의 관련기사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기사를 7개의 영역과 8개의 문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검색된 기사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관점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보도 영역, 문제유형과 관점 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자살관련보도지침을 근거로 지침 적합성에 대해 분류하였다.

결 과 :

자살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607건, 40.6%) 다음으로 우울(310건, 16.0%)에 대한 보도가 많이 검색되었다. 21%의 뉴스는 의학정보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검색된 기사를 관점별로 분류해 본 결과 247건(16.5%)의 보도는 긍정적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된 기사는 385건(23.9%)으로 나타났다. 정신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의 82.2%가 긍정적 관점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 관점의 기사 중 93%는 사건사고 영역의 기사였으며 사건사고 영역 기사의 97%는 자살사건 보도(369건)가 차지하고 있어 자살관련 보도의 대부분이 부정적 관점의 기사로 분류되었다.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 중 89.7%의 기사가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8%의 기사가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미디어를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효율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 인터넷 언론 · 정신건강 · 우울 · 자살.

서 론

뉴스,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 현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채널이자 사회적 맥락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뉴

스는 대중에게 알리는 것과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또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정신건강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주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기사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9년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의 인구에서 인터넷 이용자 수는 35,740명, 이용률은 77.6%로 나타나고 있다.¹⁾

*서울시정신보건센터
Seoul Mental Health Center, Seoul

**용인정신병원
Yong In Mental Hospital, Yongin

[†]Corresponding author

기사에는 보도하는 신문사나 기자의 관점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그 관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뉴스의 특성상 그 전달방식이 일방향이므로, 수용자가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전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

Thortone 등은³⁾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전에 객관적인 정보로 순화시킨 '예방적 기사'(prophylactic article)를 접한 후 본 기사를 읽은 대상자가 처음부터 본 기사를 접한 대상자보다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과 관련한 일반인의 인식은 언론매체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낙인찍게 만들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대개 정신병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형태분석과 변화 추이를 다루고 있다. Wahl 등은⁴⁾ 1989년과 1999년도의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10년 동안 기사 내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 사용이 줄고 긍정적 기사의 비율 증가, 부정적 기사의 비율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그 변화의 폭은 적으며 부정적인 기사의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성완 등이 수행한 연구⁵⁾에서는 정신병에 대한 보도기사의 관점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수준에서 분류 보고하였으며, 이충순 등의 연구⁶⁾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수행된 국내의 연구의 대부분은 중증정신질환, 정신장애에 대한 언론의 보도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결과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언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결론은 유사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낙인의 문제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보도형태도 중요하다. 각국이 유사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자살관련 보도지침은 언론의 보도형태를 올바르게 가이드함으로써, 대중의 모방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유명인의 경우 사회적 이목의 집중도가 높아짐으로써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불리는 모방자살의 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서울지사살예방센터에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5년 2월 배우 이은주씨, 2007년 1월 배우 정다빈씨, 2008년 9월 배우 최진실씨 등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다음달의 자살률이 전달 대비 평균 1.6배 증가했다는 점은 배우들의 유명세와 더불어 집중적인 언론보도의 폐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⁷⁾

또한 언론보도는 대중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관련하여 객관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가 민간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문의 보도는,⁸⁾ 사회의 차별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치료율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어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특정기간 동안 보도되는 다양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슈에 대한 보도현황과 주제유형, 그리고 언론매체의 관점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분석대상 및 방법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일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기사 중 자살, 우울, 정신건강, 정신보건 4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을 주제로 담고 있는 기사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서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가 언론에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특정질환명을 가지고 검색하지는 않았으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우울은 검색어에 포함시켰다.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영역, 대상, 다루고 있는 정신건강의 주제에 대해 분석, 분류하였으며 기사의 관점이 객관적, 중립적, 부정적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살 보도와 관련한 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제시한 자살보도권고 기준안⁹⁾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2. 영역별 분류

신문기사가 담고 있는 주제를 우정아¹⁰⁾의 연구를 바탕으로 7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우정아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사를 11가지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11가지 중 7가지를 선별하였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 : 정신건강 관련 중앙정부시책 및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의 제도, 공사나 공단이 정신장애인에게 주는 혜택, 동사무소나 구청의 정신장애인 관련 시책, 정신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혜택 사항 기사.

② 의료·보건 : 정신장애별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 정신장애 예방, 원인, 의료재활에 관한 기사.

③ 사건/사고 : 자살 사건, 정신장애인 관련 범죄 및 사건 사고.

- ④ 인권 : 정신장애 인권 관련.
- ⑤ 행사 : 정신장애 관련 각종 행사 및 정신보건센터 관련 기사.
- ⑥ 조사연구 : 정신장애 관련 연구 결과.
- ⑦ 기타

3. 정신건강 문제 유형 분류

정신건강문제유형에 대한 분류는 임의적으로 다음의 8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① 우울 : 우울증 관련
- ② 우울+자살 :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보는 경우.
- ③ 자살 : 자살 사건에 대한 것만 포함.
- ④ 중독 : 알코올 중독 및 인터넷 중독, 도박중독 등의 행위중독을 포함
- ⑤ 스트레스 관련 기사
- ⑥ ADHD
- ⑦ 기타 : 조울증, 치매, 자폐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PTSD, 강박증
- ⑧ 구분 없음 : 진단 관련 사항 없음.

4. 관점에 대한 분류

정신건강에 대한 기사의 관점은 김성완(2000)⁵⁾ 등의 연구에 근거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① 긍정적 관점(객관적) : 정신건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질병의 유병률, 원인, 치료, 예후 등을 일반적인 다른 질병을 설명하는 태도와 같이 의학적이고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호의적인 태도. 편견에 상반되는 사실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② 중립적 관점(특별한 시각 없음) : 정신건강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이 없이 단순 인용된 경우로 기사에 대한 시각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한 경우이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기사의 시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③ 부정적 관점 :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는 편견을 기사내용에 담고 있거나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장애에 대한 10가지 편견¹¹⁾을 참조하여 정하였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4번 기준에 부적합하게 판단된 보도를 포함하였다.

5. 자살보도자료에 대한 분류

자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때, 자살 현장, 자살 방법 및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보도함으로써 모방 자살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권고기준안은 6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자

들이 본 권고기준안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①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②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

④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하다.

⑤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6. 통계처리

조사된 자료는 SPSS WIN12.0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시 결측치는 제외하였다. 변수들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영역과 주제, 기사의 관점과의 관계에서 응답수가 분포 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기사의 보도주제, 월별 분포 및 주 연령층

본 연구에서는 총 1,495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재 신문사의 분류를 보면 인터넷 검색으로 기사 모니터링을 한 연구 방법에 따라 뉴스통신사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국종합일간지가 17.1% 전문분야 신문과 인터넷 신문이 약 14%로 기재 되었다. 월별 분포로는 6월(288개, 19.3%), 7월(278, 18.6%)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1,495건의 기사 중 706건(47.2%)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사였으며 다음으로 457건(30.6%)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사로 구성되었고,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도가 99건(6.6%)으로 가장 적었다.

2. 보도기사의 영역별 분류

1,495개의 기사의 영역별 분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사건사고가 467건(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건(26.8%)은 보건의료 관련 영역, 320건(21.4%)은 행사로 나타났다. 정책(84건, 5.6%), 인권(22, 1.5%) 관련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보도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사건사고의 보도에 치중하고 있고, 정신보건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주체들의 언론 홍보활동 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정책적 주제나 인권옹호적 주제에 대해서는 적은 빈도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사에 나타난 정신건강문제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607건(40.6%)은 자살에 대한 단순보도 내용을 다루었으며, 자살을 우울증과 연관시킨 내용까지 합하면 전체의 47.4%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 우울 310건(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질환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표 2). 전체 기사의 약 21%는 특별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정신장애 관련 각종 행사 및 정신보건기관 관련 기사를 다룬 행사 내용과, 정신장애별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 정신장애 예방, 원인, 의료 재활 등의 보건의료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신건강문제에 따른 보도영역 분포

정신건강에 따른 기사 주제를 살펴보면 우울과 자살을 함

Table 1. Frequencies by domain

Domain	N(%)
Accidents	467 (31.2)
Health & medicine	400 (26.8)
Social activities	320 (21.4)
Research	192 (12.8)
Policy	84 (5.6)
Human rights	22 (1.5)
etc	10 (0.7)
Total	1,495 (100)

Table 3. Cross table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domain

Problems	Depression	Depression + suicide	Suicide	Addiction	Stress	Adhd	Others	Total
N(%)	240	99	607	61	28	24	436	1,495 (100%)
Policy	3 (1.3)	2 (2)	39 (6.4)	4 (6.6)	1 (3.6)	1 (4.2)	34 (7.8)	84 (5.6)
Health & medicine	124 (51.7)	9 (9.1)	98 (16.1)	28 (45.9)	19 (67.9)	12 (50)	110 (25.2)	400 (26.8)
Accident	5 (2.1)	84 (84.4)	369 (60.8)	0	0	1 (4.2)	8 (1.8)	467 (31.2)
Human right	1 (0.4)	0	0	0	0	1 (4.2)	20 (4.6)	22 (1.5)
Social activity	19 (7.9)	0	16 (26.2)	16 (26.2)	2 (7.1)	5 (20.8)	262 (60.1)	320 (21.4)
Research	87 (36.3)	4 (4)	13 (21.3)	13 (21.3)	6 (21.4)	4 (16.7)	65 (14.9)	192 (12.8)
etc	1 (0.4)	0	0	0	0	0	9 (2.1)	10 (0.7)

게 다룬 경우와 단순 자살 보도는 대부분 사건사고로 다루어졌고, 우울, 스트레스 및 기타 문제는 보건의료와 조사연구 영역에서, 그리고 중독과 ADHD는 보건의료와 행사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3).

5. 기사의 관점

정신보건을 다룬 기사의 관점을 보면 247건(16.5%)가 비교적 긍정적 관점의 보도를 하였으나 대다수의 경우(59.6%) 정신건강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이 없이 단순 인용된 경우나 기사에 대한 시각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이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기사의 시각이 뚜렷하지 않은 중립적

Table 2. Frequencies according to mental health problems

Mental health problems	N(%)
Suicide	607 (40.6)
Depression	240 (16.0)
Depression + suicide	99 (6.8)
Addiction	61 (4.1)
Stress	28 (1.9)
Adhd	24 (1.6)
Other problems	125 (8.4)
Anxiety	26 (1.7)
Dementia	20 (1.3)
Sleep disorder	18 (1.2)
Bipolar	14 (0.9)
Schizophrenia	13 (0.9)
Tic disorder	10 (0.7)
Ptsd	10 (0.7)
Psychopath	4 (0.3)
Autism	4 (0.3)
Eating disorder	2 (0.1)
Personality disorder	2 (0.1)
Sexual disorder	1 (0.1)
Social withdrawal	1 (0.1)
Not determined*	311 (21.0)

*Not determined : news which are not related to any specific psychiatric diagnosis

인 관점이었고, 358건(23.9%)은 부정적 관점을 가진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관점 기사의 96.3%는 자살보도권고기준 3,4번에 부적합한 기사가 차지하고 있었다.

기사의 관점과 보도 영역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관점으로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기사가 203건(82.2%)로 가장 많았으며 중립적인 관점에서는 행사에 관한 기사가 314건(35.3%)로 가장 많고 그 외 영역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부정적 관점을 가진 기사로는 사건사고의 영역이 333건(93%)로 단연 높게 나타나 사건사고와 관련한 기사 대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영역에 대한 관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0.001$) (표 4). 정신건강주제와 관점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에 대한 주제는 중립적 관점의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기사 중에서도 73건(29.6%)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었다. 자살관련 주제는 중립적인 관점의 288건(32.4%),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기사의 271건(75.7%)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관련 보도는 총 22건(1.5%)였으며 9건(5%)은 긍정적 관점으로 분류되었고 4건이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되었다. 긍정적 관점으로 분류된 기사의 예로서는 “정신질환자 사회 편견 언론의 책임이 크다”,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시급하다” 등을 들 수 있으며, “강제입원”, “인신구속” 등의 용어가 제목 혹은 내용 중에 포함된 기사는 부정적 관점의 기사로 분류되었다. 정신건강주제에 따른 관점의 분포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0.001$).

6. 자살 사건사고를 다룬 기사에 대한 자살보도권고기준안 적합성 여부

자살 사건사고를 다룬 기사 369건에 대해서 자살보도권고기준안의 적합성여부를 살펴보았다. 권고기준 5, 즉 보도 시 확실한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준은 99.5%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 흥미유발, 특종 경쟁의 수단화 등을 지적하는 권고기준 6에 대해서도 약 80%의 수준에서 적합하게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자살보도기사의 89.7%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고기준 2), 68%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권고기준 3). 대다수는 아니었으나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고 있는 경우도 36.9%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권고기준 4). 권고기준 1은 보도 이전의 행태를 제시한 것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중증정신장애 중심으로 언론의 보도 형태를 조사분석하였거나 시차를 두고 변화의 추이를 연구한 것과는 달리, 특정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는 정신건강주제를 개괄적으로 조사 분석함

Table 4. Cross table of perspectives and mental health problem and domain

Perspectives		Positive	Neutral	Negative	p
N (%)		247 (100)	890 (100)	358 (100)	
Mental health problem	Depression	73 (29.6)	163 (18.3)	4 (1.1)	$p<.001$
	Depression + suicide	9 (3.6)	11 (1.2)	79 (22.1)	
	Suicide	48 (19.4)	288 (32.4)	271 (75.7)	
	Addiction	18 (7.3)	41 (4.6)	2 (0.6)	
	Stress	12 (4.9)	15 (1.7)	1 (0.3)	
	Adhd	10 (4.0)	14 (1.6)	0	
	Other problem	49 (19.8)	76 (8.4)	1 (0.3)	
	Not determined	28 (11.3)	283 (31.8)	0 (0.0)	
Domain	Policy	18 (7.3)	63 (7.0)	3 (0.8)	$p<.001$
	Health & medicine	203 (82.2)	179 (21.0)	18 (5)	
	Accident	1 (0.4)	133 (14.9)	333 (93)	
	Human right	9 (3.6)	9 (1.1)	4 (1.1)	
	Social activity	6 (2.4)	314 (36.0)	0	
	Research	9 (3.6)	179 (21.0)	4 (1.1)	
	etc	1 (0.4)	13 (2.1)	0	

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현상으로서의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이자 동시에 주요 사회문제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보도형태를 관점에 따라 분석하였다. 김위근 등이²⁾ 주장하는 것처럼 뉴스는 그 전달방식이 일방향이면서, 수용자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전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특성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 뉴스가 활성화되면서 뉴스의 이런 특성은 다소 퇴색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이전 연구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뉴스의 활성화가 반영된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사에 대한 기사가 전체 검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주체가 주도적으로 언론홍보를 통해 기사화시켰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26.8%) 역시 행사보다는 덜하겠지만 기존의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가 쉽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TV, 라디오, 신문의 매체만 존재했을 때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기사는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된 기사 중 5%에 불과했고 대부분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관점의 기사로 분류되었다(표 4). 이러한 점은 바람직한 대중홍보전략을 구상하는 주체로 하여금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형태의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게 하는데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2009년 인터넷을 통한 정신건강주제에 대한 보도는 자살과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보도기사의 47.4%에 이르고 있어 자살이 이 시대의 주요 사회적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방자살 등 자살로 인한 이차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되고 있는 보도지침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아직 그 보도행태가 자극적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정부가 제시한 2차 자살예방 5개년 정부대책안¹²⁾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 보도 형태에 대한 분석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보도건수 315건 중 98건이 자살보도 권고지침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의 45%보다는 향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모든 권고지침을 준수하는 기사의 비율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권고지침별 준수여부를 살펴보았다. 비교적 정보 출처의 객관성 측면은 대다수가 충족시키고 있으나, 자살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 및 특정 이슈가 자살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식의 보도 형태는 보도지침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사건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권고지침에는 위반한 것으로 분류했지만 관점에 의한 분류에서는 중립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김성완 등이 수행한 연구⁵⁾의 관점기준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맥상의 의미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불확실한 정보로서 자살의 원인을 추측성으로 제시하는 보도는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부정적 관점의 보도는 전체 보도의 23.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5.7%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대표적인 부정적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기사의 제목이 부정적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웃었다 울었다 양극성 장애 특하면 재발’이라는 보도는¹³⁾ 외국의 연구결과를 중립적 관점에서 인용한 기사의 내용에 양극성 장애의 병리적 특징을 회화하해서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관점의 기사로 분류되었으며, 기사의 본 내용은 교정시설의 정신과적 치료시스템이 불완전하다라는 내용임에도 제목은 정신질환자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내용도 있었다. 이런 예와 같이 많은 부분 기사의 제목이 자극적이면서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대인의 정보취득 패턴을 고려해볼 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사이코패스(psychopathy)와 정신질환을 구분하지 않고 기사화한 경우도 부정적 기사로 분류되었다.

관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자 인권관련 보도 중 “정신병원 강제 감금된 것도 억울한데 약 부작용까지?”라는 기사를¹⁴⁾ 예로 들어보면, ‘강제입원’, ‘감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또한 기사 내용 중에는 입원 경험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정제로 강제로 기절시키고...”라는 표현도 볼 수 있다.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비자의적 입원’이라는 법적 용어를 대체해서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이 대중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하게 되며, 치료 목적성을 배제한 ‘감금’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병원의 환경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내용 역시 일반 대중이 정신의료기관에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정신장애, 인권,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가 많은 부분 정신의학 이외의 전문 영역, 예를 들면, 신문방송학, 교육학, 인문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디어 상의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결

론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동시에 정신질환과 정신 장애를 의학적 질환의 측면보다는 사회적 낙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깔려 있다. 즉, 정신질환자는 신체질환자보다 사회적 일탈의 성격이 강하고 그 일탈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낙인(labeling)과 차별(discrimination)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사회의 통제기전이 개입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로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수용화 된다는 이 이론은 정신질환은 의학적 질환으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며 반정신의학(anti-psychiatry) 운동으로 연결된다.¹⁵⁾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미디어가 부정적 기여역할을 하고 있다고 문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올바른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원과 같은 또 다른 대상을 낙인찍는 보도형태는 사실 보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는 미디어의 기본 방향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와 정확한 용어 선택의 오류 등을 보인 기사를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는 주제어로 검색한 단어가 모든 정신질환명이나 이슈를 주제로 검색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용어인 정신건강, 정신보건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살, 우울이라는 특정 이슈만을 주제로 검색하였다는 점이며 이는 검색된 기사의 빈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색어 선정을 그렇게 한 이유로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보도형태를 알아본다기 보다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서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가 언론에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결론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으나 보건의료정보 및 행사에 관련한 사안도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었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홍보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다수의 부정적 관점의 보도는 자살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미준수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관련보도에 대해서도 과잉일반화의 오류와 용어선택의 문제로 인한 부정적 언론보도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언론 모니터링 활동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kisa.or.kr [homepage on the internet].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Available from <http://www.kisa.or.kr/>
- 2) Kim WK (2005) : Influential factors for the use of web news media ; Focused on the internet newspaper and the portal news service [dissertation]. Seoul : Sungkyunkwan Univ.
- 3) Thorntone JA, Wahl OF (1996) : Impact of a Newspaper Article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 17-25
- 4) Wahl OF, Wood A, Richards R (2002) : Newspaper Coverage of Mental Illness : Is It Changing?. Psychiatric Rehabilitation Skills 6(1) : 9-31.
- 5) Kim SW, Yoon JS, Lee MS, Lee HY (2000) : The analysis of newspaper-articles on psychosi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9 : 5 : 838-848
- 6) Rhee CS, Lee DY, Hwang YS (1996) : Reports of crime conducted by the mental ill in Korean newspaper.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5 : 5 : 1132-1144
- 7) 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2008) : Annual report
- 8) joins.com [homepage on the internet] Yonhap news. [cited 2009. July 26] Available from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
- 9)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n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2007) : Standard guidelines for media report of suicide
- 10) Woo JA (2000) : An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the image of people with disability [dissertation]. Busan : Kyungseung Univ.
- 11) mw.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vailable from <http://www.mw.go.kr>
- 12)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 The second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lan, pp40-42
- 13) www.mdtoday.co.kr/health/news/index.html?cate=16&no=83844
- 14) 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5938
- 15) 김창엽 외 (2002)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서울 : 도서출판 삼인, pp181-182

Trend of Internet Media Report for Mental Health and Suicide

Myung-Soo Lee, M.D., MPH, Juna-A Ko, PRN, Jeong-Ha Oh, MSW,
Yoon-Sik Shin, M.D., Jung-Suk Park, MSW
Seoul Mental Health Center, Seoul, Korea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trend and perspectives of internet news on the issues of mental health, mental illness and suicide.

Methods : The total 1,495 internet news were collected from 1 March to 30 September with four key words ; mental health, mental illness, depression and suicide. We categorized them into 7 domains and 8 mental health problems. And we categorized the internet news with the perspectives of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According to the media guideline for suicide event,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ews followed the guidelines or not.

Results : The news about suicide issue was most common (607 news, 40.6%) and followed by depression (310 news, 16.0%). 21% of internet news dealt with medical informations and social activitie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all the searched news, 247 reports (16.5%) were categorized as positive perspectives and 385 (23.9%) were as negative. Many reports about medical information were categorized as positive perspectives (82.2%). 93% of negative perspectives was attributable to report about accident and 97% of accident was related to suicide. Among 369 news which reported suicide accident, 89.7% of news violated media guideline "Media should not describe suicid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suicide method and site in detail", and 68% of news violated the guideline "Media should not remark suicide motive conclusively without enough information".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monitoring system for media report on mental health issues including suicide.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active strategy for changing attitude of mass media and general public.

KEY WORDS : Internet media · Mental health · Depression · Suicide.
